

글로벌 공학인재양성

공인원 이 함께 합니다.

공지사항

인증절차 및 제도개선사항

Main News

인증기준 2015(안) 공청회 개최

ABEEK 소식

2014년도 평가위원(EAC/CAC) 워크숍 및 우수 평가위원 시상식 개최
제30차 이사회 및 2014년도 1차 총회 개최
2014년도 1차 평가단장(EAC/CAC) 워크숍 개최
2014년도 제3차 ETAC 평가자 교육 워크숍 개최
제6차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위원회 개최
제39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2014년도 동계워크숍 개최
2014년도 IT산업체자문운영위원회 개최
서울 어코드(Seoul Accord) 좌담회 개최
다우기술-공인원 업무제휴 체결

공인원 in 미디어

[디지털타임스] 서울어코드, 글로벌 IT 공학교육 교류. 혁신 이끈다
[디지털타임스] 공학교육 인증 받으면 해외취업 '날개'

인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탐방

인증절차 및 제도개선사항

주요 개선 내용

◆ 일정 진행

- 전체 평가기간의 단축 (예년에 비해 2개월 단축)
- 서면평가 비중 증대 : 자체평가보고서의 충실도 및 완성도 향상 필요
- 서면평가 결과를 방문평가 전에 대학에 전달(서면평가 의견서)
- 평가단장의 방문 전 컨설팅수행
- 방문평가에서 실질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함
- 이전평가 대비 '부족사항설명서 전달' 및 '7일대응' 단계 삭제
- 방문 후 조율 - 전공분야조율위 및 논평서조율위를 Pipeline 방식으로 운영
- 방문평가 후 5주 내에 예비논평서 발송, 논평대응 기간은 2주로 축소

◆ 방문평가 일정 조정

- 대학방문 일정 변경(대학방문은 1박2일, 1일차 : 목, 2일차 : 금)
- 평가단은 방문3일차에 자체회의 (평가결과 조율 및 예비논평서 초안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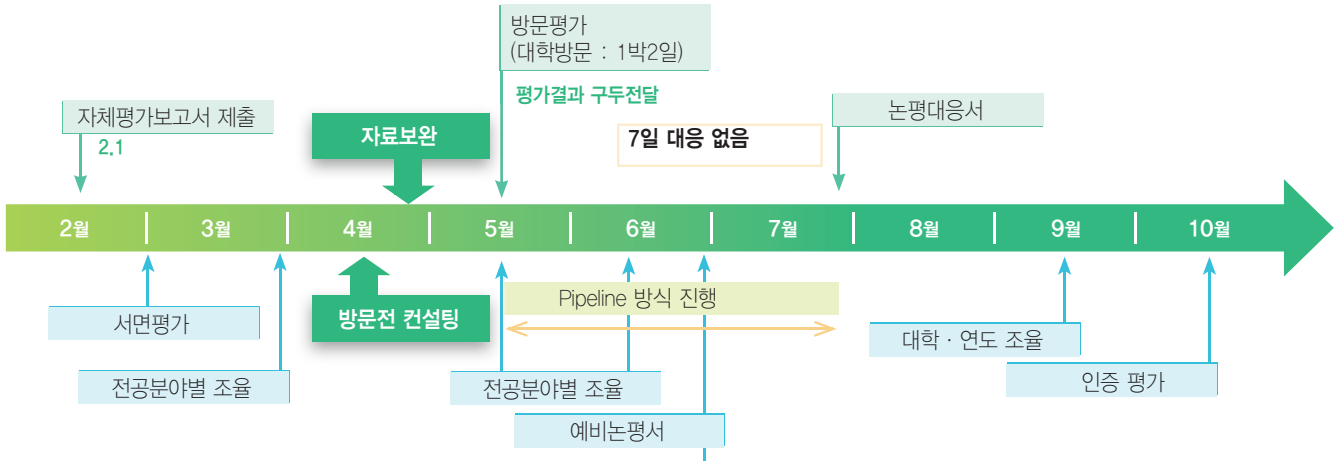
◆ 소통

- 평가위원의 프로그램 피드백(feedback), 마무리 면담의 실효화
- 평가단, 인증사업단 (Editor I, II, 위원장) 조율

전체 일정

항 목	현 행	개 선	일 정
제출	자체평가보고서	자체평가보고서	2.1
서면평가	형식적, 개별적	집중식(1박2일) <강화>	2월
서면평가의견서	없음 (평가단사전 2~3회 검토)	(실질적 평가 및 조율 강화)	3월
	없음(평가단장 검토)	교육기관 전달	V-4주
방문평가	4~5월	평가 결과 구두로 전달	5월(V0)
	부족사항설명서	예비논평서로 같음	
7일대응	있음	없음	V+1주
전공분야별 조율	6~7월	(pipeline 방식 진행)	V+2주
예비논평서 준비	7~8월	예비논평서 초안	V+3주
예비논평서 전달	8월말	예비논평서 전달	V+5주
논평대응서	9월말~10월초	논평대응서	V+7주
논평대응 검토	평가단 검토	평가단장 + 인증사업단 담당위원검토	V+9주
대학·연도 조율	11월	<최소화> - 9월	V+17주
인증평의회	12월	인증판정 - 10월	V+21주

2014년 적용 인증평가 절차



조건부 인증(CA) 평가판정 도입



◆ 조건부인증(CA: Conditional Accreditation) 판정

- 인증판정 시 결함(D)이 남아 있어 이를 2년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최대 3년간 인증이 유지된 후 종료되는 판정
- 기존의 SC 판정을 대체하는 의미를 지녀 더 이상 SC 및 SE 판정은 사용하지 않음

◆ 조건부인증평가(CAR: Conditional Accreditation Review)

- CA 판정 후 2년 차에 결함(D) 해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반드시 방문평가 포함)
- CA 판정 시 결함(D)으로 판정된 인증기준에 대해서만 평가
- 결함 해소 시: 조건부인증해소(CAS: Conditional Accreditation Settled) 판정으로 3년차에 조건부인증중간평가(CIR)
- 결함(D) 미해소 시: NA 판정으로 1년간 인증이 유지 된 후 자동으로 인증 종료

◆ 조건부인증중간평가(CIR: Conditional Accreditation Interim Review)

- 일반 중간평가(IRv: Interim Review)와 동일한 절차로 평가
- 평가에서 결함(D)이 존재하는 인증기준이 있으면 인증불가(NA)로 판정

조건부 인증(CA) 평가판정 도입



인증판정 종류	인증유효기간(년)
차기정기평가 (NGR : Next General Review)	6
중간보고 (IR : Interim Report)	3
중간방문 (IV : Interim Visit)	3
조건부인증(CA : Conditional Accreditation)	2
중간보고필 (RE : Report Extended)	NGR 시점까지
중간방문필 (VE : Visit Extended)	NGR 시점까지
조건부인증해소(CAS : Conditional Accreditation Settled)	1
인증불가 (NA : Not to Accredite)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 김영길입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3년 1월 정부로부터 공학분야 평가·인증 인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은 공인원이 공학교육의 개선과 세계화를 위해 15년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2007년 6월 워싱턴 어코드의 정회원으로 가입된 이래, 2008년 12월 서울 어코드에 이어 2013년 6월 시드니/더블린 어코드의 정회원으로 가입됨에 따라 공인원은 미국 ABET과 더불어 세계 최초로 4대 공학교육인증기구 동시 가입이라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원은 정부 인정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평가·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공인원의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영길 원장

인증기준 2015(안) 공청회 개최



〈인증기준 2015(안) 공청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월 27일(목) 명동에 위치한 서울로얄호텔에서 인증기준 2015(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인원 김영길 원장, 공학교육혁신협의회 임오강 회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원종 교수, 흥진씨엔텍(주) 김송호 대표를 비롯하여 학계 및 산업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증기준 2015(안)에 대해 공인원 주원종 부원장의 설명이 있는 후에 5개 학회에서 인증기준 개선(안)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인증기준 2015(안) 발표 후 학회에서 추천 받은 강릉원주대학교 박찬일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성곤 교수, 대학에서 추천 받은 서강대학교 이광순 학장과 공학교육혁신협의회 임오강 회장, 산업체 추천을 받은 흥진씨엔텍(주) 김송호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인증기준2015(안)에 대한 학회 및 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2014년도 평가위원(EAC/CAC) 워크숍 및 우수 평가위원 시상식 개최

2014년 공학교육인증(EAC/CAC) 평가위원 워크숍이 2월 중 총 5회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올해 활동할 460여 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했고, 2014년 인증평가 주요 사항과 중점검토사항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개정된 인증평가 절차와 그에 따라 추가된 서류 작성 건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졌으며, AMS 실습과 서면평가 작성 실습을 통해 평가위원들의 역량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제3차 워크숍에서는 2013년 우수 평가위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대상은 전남대학교 김대익 교수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국민대학교 이건상 교수 외 3명, 우수상은 경상대학교 양영일 교수 외 7명이 수상했다.



〈2014년도 평가위원 워크숍〉



〈2013년 우수 평가위원 대상 전남대학교 김대익 교수〉

제30차 이사회 및 2014년도 1차 총회 개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지난 3월 28일(금)에 제30차 이사회 및 2014년도 1차 총회를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했다. 윤종용 이사장과 김영길 원장을 포함한 공인원 이사 및 회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안건으로 공인원 주요업무, 재심위원회 결과, 규정 제·개정 결과, 운영위원 선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 안건으로는 2013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되어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2014년도 1차 평가단장(EAC/CAC) 워크숍 개최

2014년 2월 4일~5일 공인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EAC/CAC 평가단장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희원 인증사업본부장과 김차중 CAC단장을 포함하여 2014년 평가단장과 부단장 등 총 57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2014년 인증평가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인증평가 절차 및 작성서류 안내, AMS 사용법 안내,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자체평가 보고서 검토 등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평가절차는 예년과 비교하여 서면 평가의 비중이 증대되는 한편, 전체 평가기간이 약 2개월 가량 단축되고 방문평가기간이 2박3일에서 1박2일로 줄어들어 따라 실제 평가를 받는 대학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 제3차 ETAC 평가자 교육 워크숍 개최

2014년 제3차 공학기술교육인증 평가자 교육 워크숍이 2월 22일(토)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인증기준 전반과 개정된 절차를 다룬 이번 교육에는 인증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주로 참석하여 높은 집중도와 이해도를 보였다. 또한 동서울대학교에서는 인증에 대한 이해를 위해 비공학계열 교수들도 이번 워크숍을 참관했다. 교육 수료자들은 향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제6차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지난 2월 14일(금) 제6차 공학교육인증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를 시청인근 달개비에서 개최하였다.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채수원 회장과 공인원 김성조 수석부원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원 주요업무와 2014년 인증평가 계획에 대한 보고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공학교육인증제도개선위원회는 교육부,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참여하는 공학커뮤니티로 2012년 9월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7차 회의는 2014년 5월 16일 달개비(시청 인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39회 공학교육인증포럼 개최



2월 5일(수)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9회 한국공학교육 인증포럼이 개최되었다. 한송엽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공학교육 관계자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공학인증운영사례 : 홍익대(세종) 교양 및 MSC 교과목 운영’, ‘교과기반 평가(course-embedded assessment)의 의미와 방향’, ‘교과기반 학습성과 평가 방안 사례(토목공학 분야)’, ‘조선해양공학 분야 이수체계 모델’, ‘산업공학 분야 효율적인 이수체계와 준수 방안’ 등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고, 이후 활발한 토의가 이어졌다.

2014년도 동계워크숍 개최

2014년 공인원 동계워크숍이 2월 28일(금)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동계워크숍에는 김영길 원장과 김성조 수석부원장 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인증평가 주요사항, 교과기반 평가의 의미와 방향, 공학분야 프로그램 평가 · 인증 인정기관 이행권고사항 추진 현황 등 6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있었으며, 이후 위원회별 2013년 사업실적 및 2014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업무를 돌아보고 올해 업무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번 동계워크숍에서 취합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공인원 각 업무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송동주 부원장〉



〈동계워크숍 참석자 단체〉

2014년도 IT산업체자문운영위원회 개최

1월 27일(월) 건대입구 라비앙로즈에서 2014년도 IT분야 산업체 자문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건국대학교 김지인 교수, 서울대학교 김중권 교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명호 상무, NHN 이민석 학장, 비트컴퓨터 장지훈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먼저 2013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진행한 주요 업무가 소개되었다. 또한 2014년도 IT산업체자문운영위원회 명단과 위원회 진행 방식 등이 안내되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은 한 목소리로 산업체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조건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학교육인증 참여대학에 전달함으로써 각 대학이 산업체의 요구사항을 교육 과목(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서울어코드, 글로벌 IT 공학교육 교류·혁신 이끈다.

국가간 상호인증 통해 우수 인재 세계 진출 '다리' 역할
IT강국 위상강화.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밑거름 기대

공학교육, 기술, 일자리의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IT공학분야는 어떤 분야보다도 엔지니어의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한 분야다. 국제 공학 인재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글로벌 부의 고른 분배를 촉진하는 효과도 생긴다. IT기술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공급국 수입국 모두 이익이다. 취업시장에서 청년층의 국가 간 수요공급 불균형도 조정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국가 간 IT공학인재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려면 각 대학의 공학교육이 상호 인정되고 수준이 동등해야 한다. 국가 간 컴퓨터·정보기술 상호인증을 촉진하고 관리, 운영하는 협력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컴퓨터정보기술 교육의 국제적 등가성을 상호 인정하고 인증 졸업자들이 자유롭게 국가 간 이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서울어코드(Seoul Accord)다.

서울어코드는 2008년 12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6개국 공학교육인증 기관들이 IT공학교육의 국가 간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 협의체다. IT산업 선도국가이면서 청년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세계 진출의 다리를 놓는 셈이다. 서울어코드가 국내 IT공학 혁신을 통한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등 의욕적으로 외연확대에 나서 주목된다.

(디지털타임스 기사 인용)



[디지털타임스]

공학교육 인증 받으면 해외취업 '날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정부 인정기관 지정 엔지니어 해외진출 촉진 공헌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창조적 인재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산업체에 창의적 엔지니어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정부는 새해 들어 공과대학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학교육의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계적 반복적 이론 중심의 산업화 시대 교육시스템에서 탈피해 자기 주도적 창의적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 김영길)은 1999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 공학교육 혁신에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 종합 설계능력 배양 위주의 프로그램과 인증시스템은 일선 공대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 ICT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컴퓨터·정보통신 교육인증(CAC)을 기반으로 한 서울어코드를 발족시킴으로써 세계 IT공학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김성조 수석부원장으로부터 공인원의 활동과 공학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 들었다.

- 공학교육인증과 서울어코드는 대학공학교육의 질 향상과 대학 및 국가 간 공학교육의 등가성을 추구한다. 현실적으로 학교 및 국가와 무관하게 등가성을 인정받고 있는지.

"2005년 이후 현재 국내 100여 개 기업과 단체에서 채용 시 공학교육인증이수자를 우대하고 있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체에서 IT분야만이 아닌 모든 공학 분야에 대한 공학교육인증이수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어코드를 포함한 워싱턴시드니, 더블린 어코드 등 공학교육 국제협의체의 핵심 가치는 인증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을 국제적으로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기사 인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지윤

2012년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은상 입상자_KAIST 석사과정

2012년 여름, 3학년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개최하는 포트폴리오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했던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자료를 모두 정리한 후에는 포트폴리오의 방향과 구성을 잡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면서 점점 애착이 생겼고, 교수님 그리고 대회를 함께 준비하는 친구와 선배의 조언을 받아 창의성, 명확성, 성실성 등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고 마지막 시점에서는 디자인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느라 밤을 새기도 일쑤였다. 결과적으로 은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대학생활의 마무리를 한 듯 뿌듯했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나의 목표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학생포트폴리오 경진대회는 지난 학창시절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날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기업체 인사 담당자에게 듣는 면접 Tip

자신감이 묻어나는 태도

부담스러운 질문을 받더라도 우물거리지 말고 패기만만한 자신감을 드러내라.

과장(거짓)

질문사항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은 절대 금물.

또렷한 음성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대답하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할 것.

다변(궤변)

의욕이 지나쳐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는 것은 금물!
논리에 맞지 않는 궤변보다는 결론부터 분명히 말하고 간결하게 답하라.

경청

선불리 다른 주제를 꺼내지 말고, 면접관의 말에 먼저 집중해라.



[조선일보]

“엔지니어 채용 때 전공학점 집중 평가”

안승권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사진)가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는 대학 평균 학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공 필수 과목 성적을 따로 뽑아서 평가할 것"이라고 이공계 전공자 채용의 방침을 최근 밝혔다.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엔지니어는 전공 필수 과목의 학점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안 사장은 지난 17일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아무리 창의와 융합을 강조해도 결국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공학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인정해주는 '공학인 증제'를 도입한 대학의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확실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최근 들어 입사하는 신입 엔지니어들이 평균 학점은 우수하지만, 전공 필수 성적은 떨어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분석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영학 등 다른 전공을 복수 전공해 비(非)이공계 업종으로 인재가 몰린다는 지적도 있다. 그 결과 전자업계에는 인재가 몰리지 않는 데다 상대적으로 전공 지식이 부족한 인력이 연구·개발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안 사장은 "자기 전공에 매진한 학생들이 취업에서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 인용〉

[경향신문]

수시로, 경력자 늘리고, 스펙보다 전문성... 기업 채용 변화 ‘이직 않는 인재 뽑기’

국내 주요 그룹들의 대졸사원 채용 방식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봄·가을, 1년에 두 차례 그룹 차원에서 한번에 수천명씩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수시모집·경력 채용에다 공인자격(스펙)보다 전문성이나 현장형 인재를 뽑는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현대차가 올 상반기부터 인문계 출신 대졸자는 상시 공채 방식으로 바꾼 것도 이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다. 현대차는 이번 실험이 성공하면 이공계도 상시 공채로 바꿀 방침이다. 기존 그룹 공채 유형에 맞게 공부해 점수는 잘 받았지만 업무 수행능력은 떨어지는 신입 사원이 많은 것도 새 채용 방식을 도입한 배경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규모 공채에 지원자가 너무 몰리는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고, 현재의 정형화된 인재 선발로는 뽑기 힘든 창의적 직원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올해 1월 20년 만에 서류전형을 부활하고, 총장추천제 도입 등을 시도한 것도 배경은 비슷하다. '대학 줄세우기' 논란으로 일단 좌절됐지만 올 하반기에도 공채에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내 기업들이 선진 업체 따라잡기에 급급하던 과거와 입장이 달라져 '창의와 참신함' 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때문에 경력자나 계열사 특성별로 맞는 인재를 수시로 찾고 있다. LG그룹은 2000년부터 그룹 공채는 없애고 계열사별로 뽑고 있다. 지난해엔 경력 채용자가 신입 공채자보다 많았다.

전문성이나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SK그룹은 학점·어학능력 같은 스펙보다 자기소개서 심사를 중시하고 있다. SK 관계자는 " '바이킹 챌린지' 라는 채용 방식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사진관 사업을 해봤거나 1만시간 봉사활동을 한 인물 등 참신한 인재를 심층면접 등을 거쳐 찾아냈다" 고 말했다.

유순신 유엔파트너즈 대표는 "정기공채 신입사원 3분의 1 이상이 이직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며 "기업들도 그 같은 비싼 수업료를 내는 대신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인재를 찾으려고 노력 중" 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 인용〉

인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소개

스마트하고 열정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공대생을 만들기 위한 Steve Jobs Project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유치로 공학교육의 발전과 혁신 선도

인제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Inje University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IICEE)는 2011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NGR(차기정기평가)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 받은 공학교육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2012년 새롭게 선정된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4년 설립된 인제공학교육연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설립되었다.

본 센터는 대학을 졸업한 공학인력의 기술수준과 산업현장의 요구수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학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학제간 현장·창의·융합형 교육을 통해 우수한 공학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스마트하고 열정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공대생을 만들기 위한 Steve Jobs Project’ 라는 슬로건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액션 플랜으로 공학교육 인증제 운영 뿐 아니라 36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해 나감으로써 인제대학교 공학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 ‘매우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으며, 2013년에는 공학교육페스티벌 「올해의 대학」 금상을 수상하며, 공학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인터뷰



〈이중협 공학교육혁신센터장〉

Q.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

A.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보다 '학생 중심의 교육' 과 '현장 중심의 교육' 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학생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장단점과 요구사항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것과 기존 학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지식 범위에서 벗어나 설계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키우는 것이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또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 2013년부터 공학분야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공신력을 얻게 된 것도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행하고 있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A.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과) 교수와 조교, 행정직원 및 연구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 및 실질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본교 자체적으로 '전공지도' 교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들이 학기 초 수강신청 과목 상담, 학기말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수들은 지도 학생들의 관찰 결과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캘린더를 작성하여 교수, 행정직원 및 학과 조교들이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인증 관련 업무를 진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인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꾸준히 각 학과(부) PD들 중심의 PD 회의를 개최하여 정례화 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학교육인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도 공학교육 및 공과대학 학과(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시행 및 홍보를 위해 교수, 직원, 조교 전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과 관련된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A. 2004년에 본교에 도입된 공학교육인증제도가 10년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정착의 단계를 지나 이제 '도약' 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뿐 아니라 공학교육인증제도를 통해 졸업한 졸업생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교육목표 자체의 적합성 측면의 검증 및 개선도 추진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학교육인증제도가 단일 인증이 아닌 이유로 일부 학생들이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일정에 따라 단일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제도적인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 후 달라진 변화 혹은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A.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 후 가장 큰 변화는 개설 교과목 종류 및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이외의 전문교양 및 MSC 분야 교과목들의 수강을 학생 개인에게 맡겨두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인 이수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따라 수강토록 유도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들의 필수적인 교양 및 기초 과학 소양 능력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 분야에서는 기초설계-요소설계-종합설계로 이어지는 설계 프로젝트들의 수행을 통해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졸업 후 기업의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 관련 업무 적응 능력이 향상되어 기업에서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시행 후 교수들의 교육에 임하는 전반적인 자세의 변화는 어떠한가?

A. 인증제도 이전에도 교수들의 교육은 있어왔지만 담당 교과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 (CQI) 노력은 인증제도로 인해 새로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개선 노력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교수들은 자신이 담당할 교과목 내용을 학생들에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교수들이 느끼는 부담 혹은 어려움이 있다면?

A. 인증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교수님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담, 관찰, 교육 등이 이에 해당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인증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교수들의 개인성향에 따라서는 다른 업무들에 비해 관심의 정도를 낮게 두는 경우도 있으며 또 관련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교수들이 학생 및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업적 반영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대한 대학본부의 자체 평가는 어떠한가?

A. 교육과 관련된 인증제도는 공학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며, 경영학, 간호학, 건축학 등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예산이므로 이에 따른 부담을 대학본부에서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는 2012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업무도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본부의 부담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 유지 후 대학본부의 공학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및 협조는 더욱 좋아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과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타 단과대학보다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인증제도가 이에 일조한 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Q.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학생/졸업생의 반응은 어떠한가?

A. 인증 프로그램으로 졸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들이 많고 이수체계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할 뿐 아니라 설계 프로젝트들을 수행해야 하므로 재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교육들이 결국은 졸업 후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이겨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설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한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취업에서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증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현재 일부 대기업 위주의 취업 인센티브 부여가 중견,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에서 인증 프로그램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역린

정조 즉위 1년, 왕의 암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살아야 하는 자, 죽어야 하는 자, 살려야 하는 자들의 엇갈린 운명. 역사 속에 감춰졌던 숨막히는 24시간이 마침내 드러난다.

● 2014년 5월 개봉

〈출처 : 네이버〉



추천 뮤지컬 태양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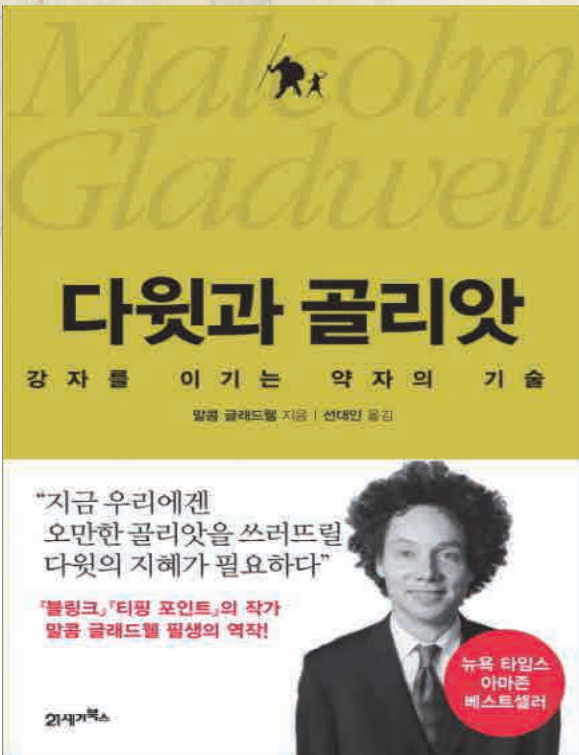
베르사이유의 태양, 루이 14세 역사상 가장 강한 왕을 꿈꾸던 한 남자!

어린 시절 왕위에 올랐지만 어머니인 안느 대비와 재상인 마자랭 추기경에 의한 섭정으로 인해 자신의 뜻을 펼쳐보지 못한 루이 14세는 성년을 맞이해 화려한 대관식을 치른다. 대관식 무도회에서 우연히 마자랭 추기경의 조카 마리 만치니를 만난 루이는 한눈에 반해 열렬한 첫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루이 14세에게 프랑스 왕으로서의 정략 결혼을 요구하는 안느 대비와 마자랭 추기경은 루이와 마리에게 헤어질 것을 강요 하지만, 두 사람은 강하게 거부한다. 결국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된 루이는 진정한 왕이 되어 자신의 여인과 조국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한다.

● 2014년 4월 10일 ~ 2014년 6월 1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출처: 공연의 모든 것-플레이DB〉



이 달의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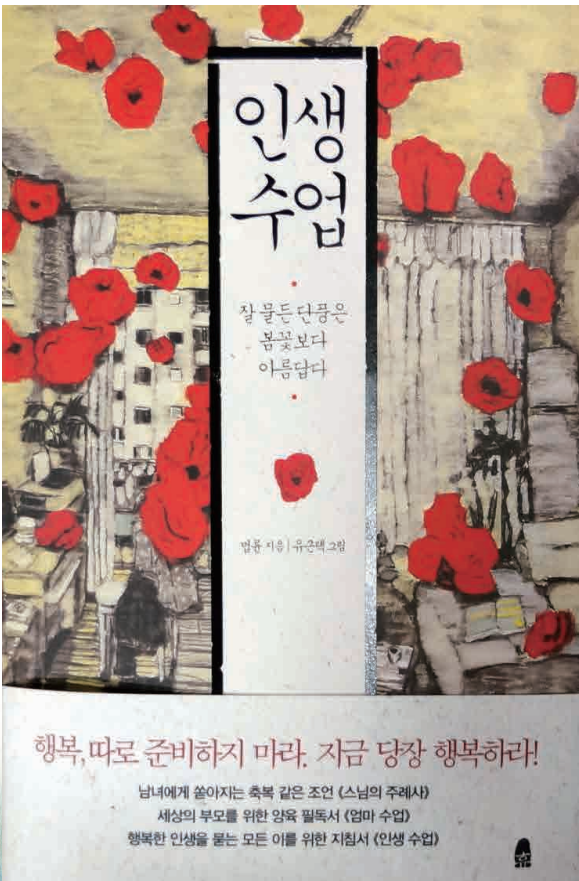
‘다윗과 골리앗’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지금 우리에게 오만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의 지혜가 필요하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다윗과 골리앗』, 《블링크》, 《티핑 포인트》, 《아웃라이어》 등 출간하는 책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영사상가인 말콤 글래드웰의 신작으로, 영민하게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승리한 우리 시대 다윗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가난, 장애, 불운, 압제 등 피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승리로 이끄는 지침을 제시한다. 저자는 거인과 약자의 싸움으로 회자되어 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시각으로 사례를 수집하여, 우리가 알고 있던 통념과 달리 강자는 자주 약하고 약자는 보기 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약자만이 움켜질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기술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출처: 네이버 책정보〉



‘인생수업’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고, 닥쳐올 미래에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에게 내면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한다!

『인생수업』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법륜 스님의 혜안이 담긴 인생지침서를 소개하는 책이다. 즉문즉설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인생의 멘토로서 메마른 세상에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스님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준다. 스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러 자기중심을 잡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늙으면 늙는 대로, 주름살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담담히 자신을 받아들여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 한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이 한마디 속에 스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책정보〉



3화 해외에서 더 알아주네? 요런 줄 몰랐지?

호주 출장전에 교수님께 인사왔다.



교수님,
한공학
왔습니다~

아니, 저 세련된 처자는???



오늘 반가운 손님들
많네~ 마침 아람이도
왔다네.

선배!



미국 유학 중이지?
아주 온 거니?

아니요~



이번에 Boogle사에
합격했어요. 본격 출근
전에 잠시 귀국한
거예요.

헉!
글지의
Boogle에?



Boogle사는
미국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더라고요.

역시
일류 회사라
요구 수준도
높네~



그 시험 보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인증 이수했다
니까 인정해 주던데요?

수업들을 땀
힘들어서 포기할까도
고민했었는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나 보네.

그러게요.

나도 너
아니었으면
포기했을걸?



다 끝까지
이끌어주신
교수님 덕분
이에요.

구뵈

허허!



다들 이렇게 제 몫을
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



아...아름아,
페이스북 주소 좀
알려줘~

한공학 군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가?

Coming S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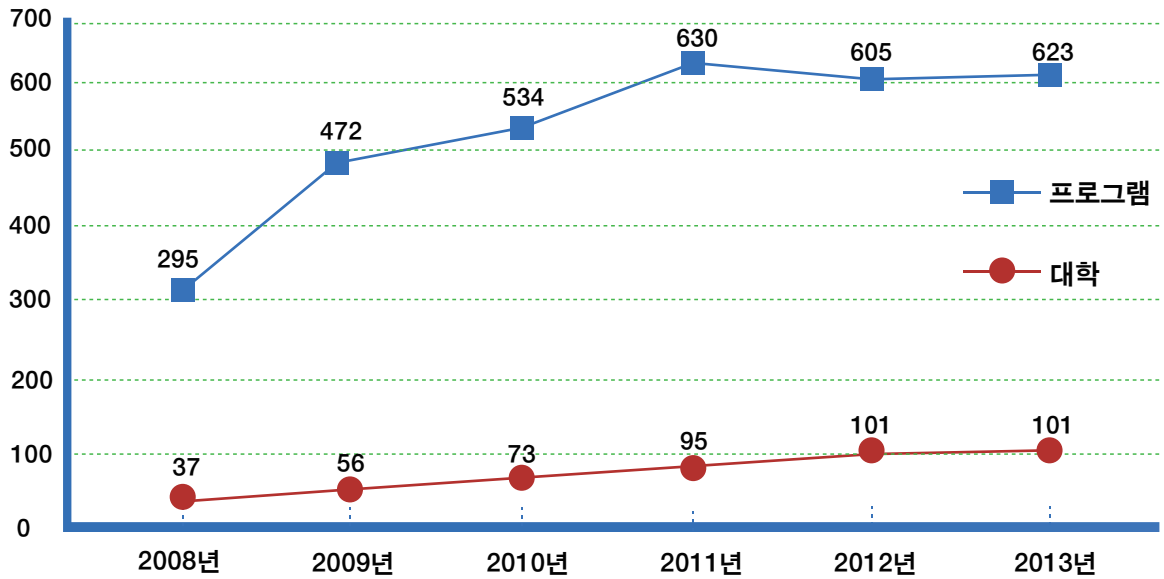
Monthly Planner

4 April 2014	Sunday 일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Thursday 목	Friday 금	Saturday 토
1 화			1	2	3	4 • 제2회 공학기술 교육인증포럼 • KETC2015 인증 기준(안) 공청회	5 • 2014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2 수							
3 목							
4 금 • 제2회 공학기술교육인증포럼 • KETC2015 인증기준(안) 공청회	6	7	8	9	10 • 2014년 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 방문평가 전 PD초청간담회	11	12
5 토 • 2014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6 일							
7 월							
8 화							
9 수							
10 목 • 2014년 인증평가 대상 프로그램 방문평가 전 PD초청간담회	13	14	15	16	17	18 • 제40회 공학교육인증포럼	19 • 2014년도 제8차 운영위원회
11 금							
12 토							
13 일							
14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 제40회 공학교육인증포럼	20	21	22	23	24	25	26
19 토 • 2014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							
20 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7	28	29	30			
26 토							
27 일							
28 월							
29 화							
30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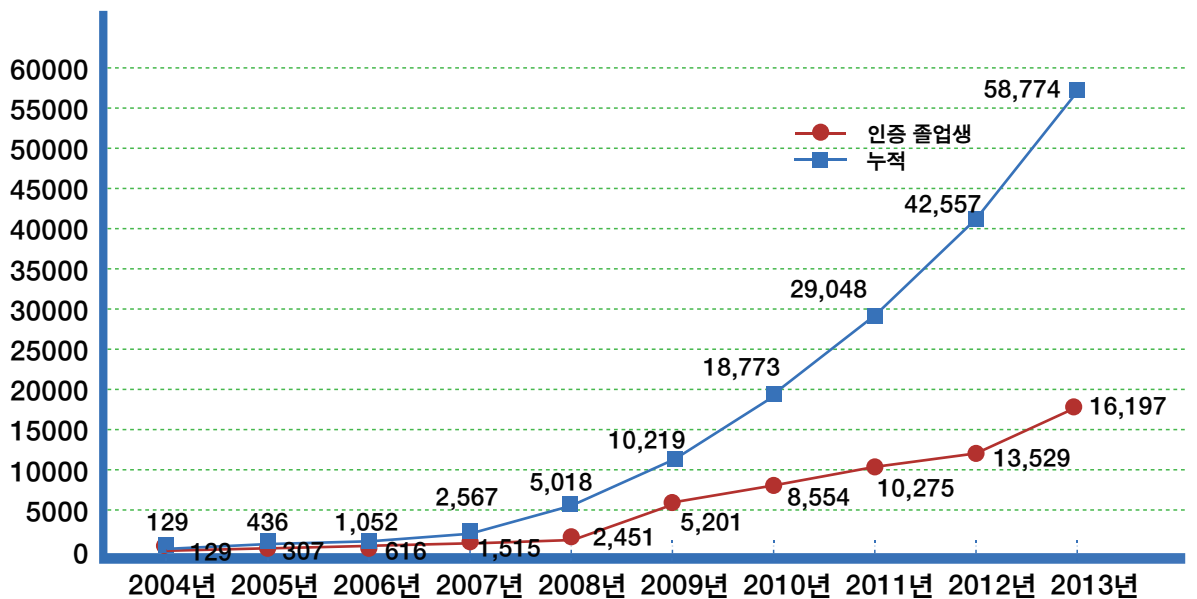
Sunday 일	Monday 월	Tuesday 화	Wednesday 수	Thursday 목	Friday 금	Saturday 토	5 May 2014
				1 14년도 방문평가 1주차(경기대, 이화여대 등)	2	3	1 목 2 금 3 토 14년도 방문평가 1주차 (경기대, 이화여대 등)
4	5	6	7	8 14년도 방문평가 2주차(숭실대, 연세대 등)	9	10	4 일 5 월 6 화 7 수 8 목 9 금 10 토 14년도 방문평가 2주차 (숭실대, 연세대 등)
11	12	13	14	15 14년도 방문평가 3주차(경성대, 호남대 등)	16	17	11 일 12 월 13 화 14 수 15 목 16 금 17 토 14년도 방문평가 3주차 (경성대, 호남대 등)
18	19	20	21	22 14년도 방문평가 4주차(광운대, 충북대 등)	23	24	18 일 19 월 20 화 21 수 22 목 23 금 24 토 14년도 방문평가 4주차 (광운대, 충북대 등)
25	26	27	28	29 14년도 방문평가 5주차(서강대, 세종대 등)	30	31	25 일 26 월 27 화 28 수 29 목 30 금 31 토 14년도 방문평가 5주차 (서강대, 세종대 등)

▲ 공학교육인증 현황

● 인증대학 및 프로그램 현황 (2014년 1월 기준)



● 인증 졸업생 현황 (2014년 1월 기준)



국내혜택

개시연도	기업명	인증 졸업생 혜택	비 고
2005년	AhnLab	서류전형 우대	<p>* 삼성그룹 :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생명 삼성석유화학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삼성화학 삼성BP화학 삼성LED 삼성SD 삼성SDS 제일모직 SB리모티브</p> <p>* 현대중공업그룹 : 현대중공업 현대정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중합상사 무주풍력발전 창죽풍력발전 태백풍력발전(주) 현대자원개발 미포엔지니어링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셀베이스오일 현대중공업스포츠 힙스 코마스 호텔현대 현대이반시스 신려관광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술투자 현대선물(주) 현대코스모</p> <p>* 인성정보 계열사 : 인성디지털 엔와이티지 벤치비 엠케이헬스</p> <p>* STX그룹 : STX STX팬오션 STX조선해양 STX엔진 STX중공업 STX메탈 STX에너지 STX건설 STX마린서비스 STX솔라 STX대련 STX OSV</p> <p>* 동국제강그룹 : 동국제강 유니온스틸 DK유아이엘 DK유엔씨</p> <p>* 다우기술 계열사 : 다우데이터 다우인큐브 한국정보인증 키움닷컴 사람인</p>
2006년	삼성전자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7년	Ericsson-LG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삼성그룹*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2008년	NHN	서류전형 우대	
2009년	KT	서류전형 우대	
	SK 커뮤니케이션즈	서류전형 우대	
2010년	벤처기업협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온세텔레콤	서류전형 우대(이력서 표기)	
	서울9호선 운영(지하철 9호선)	서류전형 우대	
	인쿠루트	인증이수여부 이력서 표기	
	비트컴퓨터	면접전형 10% 가산점 부여	
	서울반도체 / 서울옵토디바이스	서류전형 우대	
	드림위즈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몬티스타텔레콤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인성정보 및 계열사*	서류전형 10% 가산점 부여	
	신세계건설 / 신세계아이앤씨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SK텔레콤	서류전형 우대	
	가온미디어(주)	서류전형 우대	
	(주)윈스테크넷	서류전형 우대	
	삼성SNS	서류전형 5% 가산점 부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체 평가위원 추천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전국경제인연합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2011년	STX그룹*	서류전형 우대	
	OCI	인증이수 여부 이력서 표기	
	중소기업중앙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2012년	SK C&C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주성엔지니어링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휴맥스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콤텍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콤텍정보통신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다산네트웍스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핸디소프트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퓨처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옵니시스템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바이오스마트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플랜트문과과정 지원자 중 공학인증수료자 우대		
나모인터랙티브	서류전형 및 이력서 표기		
2013년	IT여성기업인협회	공학인증제도 홍보 및 확산	
	LG전자	서류전형 우대 및 이력서 표기	
	SK하이닉스	서류전형 및 이력서 표기	
	동국제강그룹*	서류전형 및 이력서 표기	
	현대제철	입사지원서 자격증 표시란 공학교육인증이수여부 체크	
	현대중공업그룹*	서류전형 가산점부여	
	캐리어	서류전형 우대	
	오텍	서류전형 우대	
2014년	한국터치스크린	서류전형 우대	
	현대모비스	서류전형 가산점부여	
	동부제철	서류전형 가산점부여	
	다우기술 및 계열사*	서류전형 우대 및 입사지원서 표기	

국제혜택

2007년 6월, 국제적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워싱턴어코드(Washington Accord) 정회원에 가입됨에 따라 ABEEK 인증 졸업생은 정회원국 사이에서 법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회원국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됨

국가별 로고	국가명	국제적 혜택
	호주 (EA: Engineers Australia)	- 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 수준으로 EA의 정회원, 기술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공인기술사 혹은 호주기술사 등록(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 Register)에 필요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 EA의 정회원 및 기술사 등록 관련 혜택과 더불어 기술이민 시, 서류 제출 면제
	캐나다 (EC: Engineers Canada)	- Licensing body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시, 캐나다 인증기구의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권장 - 학력요건 평가 시 시험 면제 ※ 단, 캐나다 자격증 취득 시 아래요건을 충족 1) 캐나다에서의 1년을 포함해 3~4년 정도의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어야 함 2) 기술사 시험(professional practice)에서 법과 윤리 과목을 통과해야 함 3) 영어 능통(퀘벡은 불어, New Brunswick은 불어 혹은 영어)
	아일랜드 (EI: Engineers Ireland)	- WA 회원기구의 인증결정을 존중하고, 아일랜드의 공인기술(Chartered Engineer) 자격을 위한 교육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
	뉴질랜드 (IPENZ: Institu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New Zealand)	- 뉴질랜드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 - IPENZ의 기술사가(Professional Membership of IPENZ)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함
	영국 (ECUK: Engineering Council UK)	- 공인기술사 (CEng) 등록 시, 영국의 인증졸업생과 동등하게 인정을 받음
	미국 (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기술사 등록 혹은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이 없고 각각의 주에서 등록 및 자격증 발급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 따라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할 시, 기술사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그 주의 정책을 따라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 주 위원회(State Board)는 ABET의 인증졸업생 혹은 교육요건과 현장경험이 인정할만한 개인은 자격증 발급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음 - 일부 주 위원회에서는 교육자격을 제3자에게 평가 받도록 하기도 하나, 미국 내 대부분의 주위원회에서 동등성을 인정함
	홍콩 (HKIE: The HongKong Institution of Engineer)	- HKIE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들이 (Graduate/ Corporate Member of the HKIE) 갖추고 있는 교육요건과 동등한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함
	남아프리카공화국 (ECSA: Engineering Council of South Africa)	- 기술사 후보(Candidate Engineers)가 되기 위한 교육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함 (한국 (ABEEK) 은 2007년부터 인정)
	일본 (JABEE: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 일본에서 석·박사 과정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석·박사 과정을 받기에 충분한 학부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추천서를 JABEE 명의로 발급 -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면 JABEE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
	싱가포르 (IES: the Institution of Engineers Singapore)	- 싱가포르 기술사회에서 워싱턴어코드 회원기구의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이 싱가포르 내에서 PE(Professional Engineer)가 되기 위한 학력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공식 인정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
	대만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aiwan)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터키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Turkey)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말레이시아 (IEET: Institute of Engineering Education Malaysia)	- 말레이시아 인증기구 졸업생과 동등하게 대우
	러시아 (AEER: Association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Russia)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한국 (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간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